



톰 크루즈 “한국 13번째 방문… 30번 더 오고파”

‘디거’ 홍보 차 1년만 내한… “‘디거’ 유일무이한 영화”
 푼대 재벌 노인 변신… “영화 만드는 것 자체가 특권”
 이나리투 감독과 호흡… “스필버그·큐브릭 같은 거장”

“어메이징 (Amazing·놀랍다). 오늘 정말 아름다운 날이네요.”
 할리우드 톱스타 톰 크루즈가 블랙 코미디 영화 ‘디거’ 개봉을 앞두고 1일 한국을 찾았다. 지난해 5월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으로 공식 방문한 이후 1년여만의 내한이다.

크루즈는 이날 콘라드 서울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자리에 정말 오고 싶었다”며 “한국은 항상 을 때마다 아름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내한 소감을 말했다.

크루즈의 방한은 할리우드 배우로서 최다인 13번째 방문이다. 그는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2023), ‘탑건: 매버릭’ (2022) 등 작품을 선보일 때마다 자주 한국을 찾아 대표 ‘친한파’ 배우로 꼽힌다.

크루즈는 “한국을 13번째 방문하는 건 영광이다. 앞으로 30번 더 방문하길 바란다”며 “‘디거’를 한국 관객들이 어떻게 볼지 궁금하다. 이 영화를 나눌 수 있어 기쁘다”고 웃음 지었다.

오는 3일 개봉하는 ‘디거’는 석유 재벌 록웰 (크루즈 분)의 시추 시설로 전 세계적인 재난이 초래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영화 ‘버드맨’ (2015)으로 미국 아카데미 작품상·감독상·각본상을

받고, 배우 리어나도 디캐프리오에게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안긴 ‘레버넌트: 죽음에서 돌아온 자’ (2016)의 연출자 알레한드로 곤살레스 이나리투 감독이 9년간 준비한 프로젝트다.

크루즈는 ‘탑건: 매버릭’ 촬영을 하던 2019년 출연 제안을 받고 이 영화에 제작자이자 배우로 참여했다. 그가 연기한 록웰은 사람 인명보다 돈을 중요시하는 탐욕적인 재벌로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안하무인의 푼대다.

크루즈는 “‘디거’ 같은 장르는 이전에 읽어보지 못했다. 캐릭터도 듣고 보지 못한 것이었다”며 “(제안을 받은 날) 밤에 감독님 사무실로 가서 밤새워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시추 시설로 초래된 빙하의 작은 균열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으나, 곧 재앙이라는 점이 드러난다. 영화는 록웰을 비롯해 이에 대처하는 미국 대통령과 각료의 모습을 통해 기후 변화, 진실을 덮으려는 정치권 등 현 세태를 떠올리게 하는 풍자를 담았다. 새로운 형식으로 다층적인 서사도 구성했다.

크루즈는 “이 정도로 독창적인 영화는 없다. 유일무이하다”며 “시의적절하면서도 시대를 초월한 테마를 가진 작품”이라고 자신했다.

크루즈는 특수 분장을 통해 배를 띄우며 머리가 듬성듬성한 노인의 외양으로 록웰을 소화했다. 근래 전작 ‘미션 임파서블’, ‘탑건’ 시리즈에서 선보인 근육질 쾌남의 모습을 완전히 지웠다.

크루즈의 파격 변신에 외신 등에서는 내년 미국 아카데미상(오스카상) 남우주연상 후보로 그를 언급

하는 예측이 나온다.

크루즈는 이같은 변신이 상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물음에 “오스카와 같은 상이나 사람들의 생각, 평가와 관계없이 저는 영화를 만든다”며 수상 여부보다 작품이 더 중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화 만드는 것 자체가 특권”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톰 크루즈, 영화 ‘디거’로 13번째 내한.

연합뉴스



배우 구교환(왼쪽)·이옥섭 감독

평창국제평화영화제 제공

구교환·이옥섭, 이미 부부였다

“2022년 혼인신고”

4년 교제 끝에 결혼

배우 구교환(44)과 이옥섭 감독(39)이 이미 부부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구교환의 소속사 나무엑터스는 “구교환과 이옥섭은 2022년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의 연을 맺었다”고 1일 밝혔다.

두 사람은 2013년부터 9년간 교제한 끝에 부부가 됐으며 결혼식을 따로 올리지 않았다.

소속사는 “두 사람은 서로의 가장 가까운 동료이자 가족으로서 변함없이 곁을 지키며 함께해 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각자의 자리에서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에대 동문인 구교환과 이 감독은 2013년 단편 영화 ‘4학년 보경이’를 찍으며 연인으로 발전했다.

연합뉴스

이후 ‘메기’, ‘세마리’, ‘로미오: 눈을 가진 죄’ 등 다수 장·단편 영화 작업을 함께하며 연인이자 창작 동료로 호흡을 맞췄다. 2020년 열애를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사랑을 키웠다.

두 사람은 코미디언 장도연 주연으로 촬영을 마친 영화 ‘너의 나라’, 배우 이나영이 주연하는 ‘사랑의 카운셀러’도 함께하며 감독과 배우로 협업을 이어간다.

구교환은 2008년 데뷔해 ‘꿈의 제인’ 등으로 주목받았고 ‘반도’, ‘모가디슈’, ‘탈주’, ‘만약에 우리’, ‘군체’, ‘D.P.’ 시즌1·2,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등의 작품에서 활약했다. 지난 달 30일 개봉한 ‘부활남: 더 레드’로 관객을 만나고 있으며, 차기작 ‘폭설’도 연내 선보인다.

이 감독은 2007년 ‘씨지미와 뼈더웨이브’를 시작으로 주로 단편 영화를 작업했다.

연합뉴스

사회복무 근무지 102일 무단이탈… 가수 송민호 징역

마지막 단추 끼운 파라마운트-위너 합병

美법원이 합의안 승인

이달 6일 합병 마무리 예상

마텔 CEO 출신 경영인 영입

글로벌 영화·방송업계 공룡 기업 탄생을 예고한 파라마운트 스카이선스(Paramount Skyline)와 위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 간 인수·합병(M&A)이 결림돌을 넘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달 30일(현지



파라마운트.

연합뉴스

시간)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아라셀리 마르티네스 올긴 판

사가 파라마운트와 12개 주 정부 간의 합의안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애리조나·콜로라도·코네티컷·매사추세츠·미네소타·네바다·뉴저지·뉴멕시코·뉴욕·오리건·워싱턴 등 12개 주는 파라마운트가 반독점법을 어겼으며 지난 7월 소송을 제기했지만, 약 두 달 만에 극적인 합의에 도달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파라마운트 측은 향후 5년간 매년 30편의 영화를 극장에 걸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산하 미라맥스를 매각해야 한다. 또 미국 내 콘텐츠 제작에 매년 3억 달러(약 4077억원)를 투자하고, CBS뉴스와 CNN을 위한 별도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합병을 앞두고 전문 경영인도 영입했다.

NBC 등에 따르면 파라마운트에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책임지던 신디 홀랜드가 퇴사했으며, HBO를 담당하는 케이시 블로이스가 스트리밍 사업을 맡을 예정이다.

연합뉴스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근무지를 상습적으로 무단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위너의 송민호(33)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씨는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마포구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102일간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성 판사는 송씨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복무할 당시 부실 복무를 도운 혐의(병역법 위반)를 받는 관리책임자 이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송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이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송씨는 1심 선고를 받고 법원을 나서면서도 재복무 계획을 묻는 말에 답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수축상
 CONGRATULATIONS
대통령표창



김수성
 (이호동분회 사무장)

17년 9개월간 경로당 활성화·노인복지 증진에 헌신한 공로 인정 제30회 노인의 날 대통령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한노인회 제주지회 이호동분회장 김석만
동마을 경로당 회장 송두길
백포 경로당 회장 송광우 외 회원일동
현사마을 경로당 회장 양창남

수축상
 CONGRATULATIONS
행정안전부장관표창



송태중
 (제주시 이도2동 통장협의회장·前 KT 근무)

행정안전부장관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가족일동

한라일보가 제주의 대표 신문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섰습니다.

한라일보가 대세다!

결혼·부고·축하광고 도내 최다 게재
제주도내 최고의 신문광고 효과!!

문화체육관광부·한국언론진흥재단 2021신문잡지 이용조사
열독률·유료구독률 제주도내 1위

2023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2005년부터 17회, 제주지역 ‘최다 선정’

도내 언론사 최초 ‘마포’ 품질인증 01
 미래창조과학부 / 2016년 발표

제주지역신문 신뢰도 1위 02
 리얼미터 / 2015년 발표

제주지역 유료판매부수 1위 03
 한국ABC협회 / 2016~2021년

제주지역 발행부수 1위 04
 한국ABC협회 / 2020~2021년 발표

광고 750-2828·구독 750-2314·서귀지사 732-5552